

나주시, '명품 나주배 대전환' 비전 선포

2023년 글로벌 브랜드화 원년 도약 목표 고품질 브랜드 육성 생산·유통체계 구축

전국 최대 배 주산지 나주시가 미래 100년 과수산업을 선도할 '고품질 명품 나주배 생산·유통발전 대전환' 비전을 선포했다. 나주배를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명품 브랜드 과일로 육성한다는 포부다.

나주시는 27일 "최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명품 나주배 생산·유통발전 대전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 나주배 글로벌 브랜드화 원년"을 목표로 5개 비전을 선포하는 한편, 고품질 나주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생산·유통 조직과 공동 협력을 다짐했다.

비전 선포식에는 윤병태 시장, 이상만 시의회 의장, 김호진·이재태·최명수 도의원과 시의원, 나주배 생산·유통조직, 수출업체 대표·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나주시장 인증 나주배 품질보

증제 도입 ▲성장축진제(GA) 무처리 배 생산·유통체계 구축 ▲고품질 품종 배 생산단지 확대 ▲수출 전문단지 육성·해외 시장 개척 ▲나주배 소비·유통 활성화 대책 추진을 미래 100년 나주배 생산·유통발전 대전환 비전으로 선포했다.

비전 실현 과제로는 ▲당도 12브릭스(brix) 이상, 성장축진제 무처리 배 등 나주시장 인증 ▲2026년까지 성장축진제 무처리 배 계약 출하면적 900ha 확대 ▲신화·장조·수퍼골드·설원 등 품종 배 재배 면적 560ha 확대 등을 수립했다.

또 해외 전문 바이어 확보, 해외국가 우호 협력을 통한 ▲수출량 1만t 달성 ▲대도시권 홍보활동 강화 ▲나주배 지리적 표시제 관리 강화 ▲공공기관 대상 나주배 사주기 운동 전개 등에 힘을 기울인다.

나주배 생산·유통 조직 대표들도 이



나주시가 미래 100년 과수산업을 선도할 '고품질 명품 나주배 생산·유통발전 대전환' 비전을 선포했다. 선포식에 참석한 윤병태 나주시장, 이상만 시의회 의장, 김호진·이재태·최명수 도의원과 시의원, 나주배 생산·유통조직, 수출업체 대표·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날 공동 협력 다짐문 낭독과 떡 케이크 커팅 등을 통해 비전 실현·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 동참과 협력을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시는 나주시장 인증 나주배 품질보증제 추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용역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령, 타 지자체 사례, 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품질보증제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배 하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건강한 과일을 생산·유통하고 내수시장을 넘어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명품 과일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나주배 브랜드 가치를 높여겠다"며 "2023년을 고품질 나주배 육성 원년으로 삼고 농업인들이 흘린 땀만큼 고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비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영수기자

제3회 서남해안 세계 섬 포럼 성료

'2028세계섬엑스포유치추진위원회' 개최

'2028세계섬엑스포유치추진위원회'와 서남해안 섬 벨트 4개 시·군(목포시·완도군·진도군·신안군)은 27일 "최근 진도 솔비치 리조트에서 섬 수도 위상 정립과 섬 정책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제3회 서남해안 세계 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박홍률 목포시장, 김희수 진도군수, 강성운 완도부군수, 박형호 신안부군수와 4개 시·군의회 의장,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을 비롯한 각 지역 시·군민 및 섬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부터 진도군을 시작으로 서남해안 섬 벨트 4개 지역을 매년 순회 개최함으로써 섬 지역 주민들 관심을 높여

고 정책 제언 기회를 늘려 기존 포럼과 달리 더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했다.

'귀중한 영토, 섬 발전 토론회'라는 주제로 펼쳐진 포럼에서는 신순호(사)한국섬재단 전 이사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고 Hwei Min Tsai(후에이 민차이) 히로시마대학교 총합국제연구학과 교수의 기조강연 후 Meng Qu(맹구) 국립대만사범대학 환경교육연구소 교수, 홍선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장, 신호철(사)한국섬재단 섬진흥사업단장 발제가 있었다.

토론에는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부장,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김항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강봉목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목포=정해선기자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최고 교육도시 만든다

발기인 총회·창립 이사회 개최 장학사업 기금 500억 조성 목표

해남군 교육 전담 기구인 해남군 교육재단이 설립된다.

해남군은 27일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해남군 교육 전담 기구 재단법인 해남군 교육재단 발기인 총회·창립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남군 교육재단은 지역민과 함께 키우고 성장하는 교육 도시 해남을 목표로 지역 교육 자원을 결집하고 전문 교육 정책을 발굴하는 지역 인재 육성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재단 이사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이사 12인과 감사 2인을 포함해 당면적 해남군수와 해남교육지원청장, 군 총무과장 등 총 17인으로 구성됐다.

초대 이사장은 명현관 군수가 호선됐으며 총회에서는 재단 설립취지문, 재단 정관·규정안과 재단 출연 재산안, 내년 재단 사업 계획·세입세출안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주무관청인 전남도 교육청에 재단 설립허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내년 1월 발원에 설립 등기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재단은 해남군 평생학습관 내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내년 4월께 출범하고 본격적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교육 전담 기구인 해남군 교육재단 발기인 총회 및 창립이사회를 개최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교육재단은 사무국을 총괄할 운영 국장과 3개팀 10명으로 구성돼 총 11명 직원이 근무할 예정이다.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남군과 교육지원청에서 직원이 파견돼 협업한다.

군은 교육재단의 안정적 기금 조성을 위해 사업비·운영비 외 매년 30억원씩 출연해 2032년에는 장학사업 기금 500

억원 조성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군민·향우 참여 장학사업 기금 조성 사업도 확대해 기금 적립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장학 사업 기금 500억원 조성 사업을 통해 13억원의 사업기금 기탁이 이뤄져 현재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은 117억원 가량 적립됐

다.

명현관 군수는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 모아져 교육재단 설립이 자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해남군민 누구나 교육 받을 수 있는 지역 교육 여건을 만들어야 아이부터 어른까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영광군, 도농식품유통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올해 3개 농업 분야 평가 모두 최우수군 선정 쾌거

영광군은 27일 "농산물 판로 확대·농식품 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차별화된 농업 유통 정책 추진을 인정받아 2022년 전남도 농식품유통 업무평가에서 최우수군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평가는 도내 21개 시·군 대상으로 4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군은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유통 활성화 ▲농식품 산업 기반 구축·품질 관리 ▲쌀 판매·브랜드 쌀 육성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객관적 추진 실적을 인정받았다.

특히 2022년 전남도에서 평가한 3개 농업 분야 ▲농정 업무 ▲식량·원예 업무 ▲농식품유통 업무 평가에서 모두 최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농업 1등급 위상을 높였다.

선진 농업·농촌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한 결과, 농정 업무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군, 식량·원예 업무평가 2년 연속 최우수군, 농식품유통 업무평가 6년 연속 최우수군으로 선정됐다. /영광=김동규기자

무안군, 34개 분야 수상·52건 공모 선정

2022년 주요 업무 성과 보고회 개최

무안군은 지난 26일 김산 군수 주재로 실단과소장과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주요 업무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2022년 부서별 군정 성과 공유를 통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군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무안군은 행정·복지·경제 등 34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 '행정안전부장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상', 농협중앙회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등 중앙부처

15개 및 전남도 19개 상을 수상했다.

특히 민원지적 분야에서 지적재조사 업무 유공으로 대통령상 표창을 받는 등 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군정 발전을 견인할 공모사업에는 5개 분야 52건 사업이 선정돼 76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사업은 ▲오룡고등학교 신설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440억원 ▲전남 청년 문화센터 조성 20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0억3천400만원 ▲삼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36억원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40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55억원 등이다. /무안=김상호기자

전원주택(1채) → 8,000만

- ① 세컨하우스
- ② 소형 주택
-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 ④ 주말 하우스 최고
-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장성댐 5분) (등산로 있음) (6M도로 접)

010-6670-9800

상가매매(상무지구)(유형적합)

중심 상업지구 (유형 적합)
(6층, 7층) = 140평

시세 → 10억

→ 급매 7억

보3천 월 380만 (용 4억5천)

010-2614-9801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 경매 실전 교육반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 | |
|---|---|
| 광주 | 북구 두암동 (상기주택)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
| |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 감평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
| | 서구 매월동 (저동차상가 7층) ▶ 감평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
| |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2층 ▶ 감평가 6억1,700 → 최저가 2억7,600 |
| | 광산구 소촌동 (대지 41평) ▶ 감평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
| | 북구 우산동 (주택)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
| | 서구 화정동 (주택) ▶ 감평가 1억8,500억 → 최저가 1억2,900 |
| 북구 운암동 (아파트)벽산블루 ▶ 감평가 7억7,700억 → 최저가 3억2,300 | |

010-2614-9801